

# '전투력 향상 위한 장병 그린복지 실현'

### 전북대 장병녹색문화공간연구소-육군공병학교 공동 심포지엄... 군부대 옥외 공간 개선 등 필요성 제기

전북대학교 장병녹색문화공간연구소(소장 안득수)는 지난 20일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육군공병학교(학교장 김상술)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그린복지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고, 군부대 옥외 환경 분야에 대한 현황과 미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투력 향상! 장병의 그린복지로 그리다'라는 주제로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고동준 전 공병실장, 이승재 전 공병학교장, 박찬근 전 합동군사대학 총장 등 공병 관련 주요 전·현직 장성을 포함한 100여 명의 장교들이 참석해 군부대 그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육군공병학교 목진혁 교관이 '군부대 옥외 여가활동 공간 현황'에 대해, 윤명숙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가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직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전북대 장병녹



전북대학교 장병녹색문화공간연구소는 지난 20일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육군공병학교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색문화공간연구소 삼재구 박사가 병사들의 옥외 여가활동과 스트레스 대처 및 직무역량 저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여가활동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장병들

의 복지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외 공간 개선을 통한 녹색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득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군과 학계가 협력해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그들에게

환경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군부대 옥외녹지공간 계획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 '동서양의 미래공동체와 메타휴먼'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21일 대학관 222호에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서양의 미래공동체와 메타휴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HK+연구단의 이경배·진서금 교수(이상 전주대)의 사회로 1·2부에 걸쳐 총 5개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변주승 단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학술대회 1부는 '메타휴먼시대의 미래공동체'라는 주제로 이대승 연구교수(전주대)가 '미래 공동체 담론으로서 조소앙의 삼균주의 탐색'을 발표하고, 박성희 이사(갈라나사회경제연구소)가 '〈전환기, 칼 폴라니 공동체론의 함의-거대한 전환 21장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를 발제했으며, 이용욱 교수(전주대)가 '〈초지능시대와 미래공동체-메타부조야의 필요조건〉을 발표했다. 토론은 김정철 교수(송실대), 이선 교수(전북대), 백진우 교수(서강대)가 담당했다.

이어진 2부는 '공동체와 유토피아에 대한 중국의 상상'이라는 주제로 교운실 교수(한국방송통신대)가 '〈중국 '기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21일 대학관 222호에서 '동서양의 미래공동체와 메타휴먼'이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팬데믹 이후 대안적 사회 모색

술·환경 관리 권력'의 탄생-관리사회로의 전환과 통치성의 문제'를 발표하고, 김명희 교수(전주대)가 '유토피아와 공동체에 대한 상상-위화의 원형(文城)을 중심으로'를 발제했다. 토론은 김정수 교수(전북대)와 고재원 교수(가톨릭대)가 맡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국내 학술대회를 통해 '관리, 꿈속의 인간'에 대한 담론을 발전적으로 확장하고, 팬데믹 이후 이상적 인간형과 대안적 이상사회를 모색하기 위해 21세기 새로운 인간 유형인 메타휴먼과 동서양 미래공동체 논의를 탐색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동재호 석사과정생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우수'

전북대학교 동재호 석사과정생(유연인쇄전자공학과, 로스알라모스-전북대한국공학연구소·지도교수 강래형)이 최근 열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동재호 대학원생은 와전류를 활용해 비전도성 재질인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기술은 철근의 깊이와 철근 간격을 정확히 검사할 수 있어 구조물 안정성 관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래형 지도교수는 "우리 연구실은 내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구조물의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구실의 이념을 이어가고, 최신 기술 선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는 기계, 전자, 탄소소재 및 유연인쇄전자, 3D 프린팅 등 다양한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스마트 센서와 비파괴검사, 복합재료, 딥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 RISE 체계 이해·공감대 형성

### 호원대, 오늘까지 워크숍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군산 라마다호텔 갈라홀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RISE 체계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특별자치도 RISE(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교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JB지산학협력단이 주관하여 마련됐다.

RISE는 대학지원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역대학과 지방정부, 산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행정·재정 체계다.

이번 행사는 호원대학교 교직원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RISE 체계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과 대학이 상호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호원대학교가 지역 혁신의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성 호원대 총장은 "RISE 체계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호원대학교는 지방정



호원대학교가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군산 라마다호텔 갈라홀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RISE 체계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 강연 외에도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과 사례 공유를 통해 RISE 체계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호원대

학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RISE 체계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을 통해 지역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은 21일 전주그랜드힐스호텔 5층 그랜드볼라홀에서 희망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회복중심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 '회복중심 학교문화 정착'

### 전주교육지원청, 포럼 열고 사례 발표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21일 전주그랜드힐스호텔 5층 그랜드볼라홀에서 희망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회복중심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전주 회복중심 학교문화 만들기 방안'을 주제로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강의를 시작으로 실천교사 및 학생 5명의 사례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은 "전주교육지원청이 지난 3년간 노력해 온 회복중심생활교육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위기뿐만 아니라 인식하지 않고 교육의 기회로 전환해 좀 더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시도였기에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며 "학교 내 관계의 위기인 시대에 회복적 정서의 주요 가치인 존중, 관계, 책임이 학교에 문화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더 많은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김석봉 비폭력평화물결 대표의 진행으로 원탁 소그룹별 참여자들이 현장에서의 고민과 적용점을 서로 공유하고 탐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 회복중심생활교육 운영학교 54개교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회복중심생활교육 운영학교는 회복중심생활교육을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도록 돕는 터라지기 프로그램과 학교 전반에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실천학교로 나뉜다.

더불어, 교원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학 중 회복중심생활교육 적용모델 관련 연수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연수 참여 교원을 대상으로 실천가 모임을 개설해 학기중 월 2회씩 추수과정을 통해 교원이 학교에서 미중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정기 교육장은 "회복중심생활교육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회복중심생활교육이 학교에서 문화로 정착돼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2025학년도 학습 전략 안내

### 전북자치도교육청, 내일 설명회 개최... EBS와 공동 주관 고교 1·2학년 학생 위해 학년별 수학 과목 학습전략 강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참조내 3층 시청각실에서 '2025학년도 학습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BS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는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위해 '학년별 수학 학습전략'과 '수시와 정시 입시 지원 전략'을 제공한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EBS 수학 영역 대표강사인 심주석 인천 하늘고등학교 교사가 '학년별 수학 과목 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EBS 입시대표 강사인 한양대 사대부고 윤운구 교사

가 강사로 나서 '수시와 정시 입시 지원 전략'에 대해 강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 누리집(https://www.je.go.kr/jiro)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설명회 당일 적정 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보다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갖고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진학과 희망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교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강화

### 전북교육청, 하반기 인성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전북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2024년 하반기 인성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전북교육청의 인성교육 내용 체계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전북 인성교육 핵심덕목과 하위요소를 이해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인성교육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전주양현초 정민수 수석교사가

전체 강의를 통해 '책임, 존중(배려), 세계시민성' 등 전북 인성교육 핵심덕목과 개발자료 내용 체계를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 개발자료를 활용한 분임별 강의도 진행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학년별 인성 중심 교수학습자료 제작·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인성교육 내실화를 꾀했다"면서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